소설보다 흥미로운 '남구의 시간여행' … 마을역사에 세계역사가 담겨있네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10월 1일은 남구의 45번째 생일입니다. 부산진구와 동래구의 관할 출장소로 머물다가 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1975년 10월 1일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의 인접 부분을 묶어 남구가 발족했습니다.

지금의 남구는 개청 20주년이 되던 1985년 3월 1일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수영구가 분구되면서입니다. 남구의 '공식적 역사' 는 45년에 불과하나 시계추를 거스르면 우리 남구에는 선사시대 이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이후 격랑의 역사를 헤쳐 왔습니다.

소설보다 흥미롭고 서사시보다 장대한 남구의 역사를 100대 뉴스로 짚어봤습니다.

영어 첫 도착지, 용당포(1797년)

영어가 맨 처음 한반도에 도착한 곳은 용당포 포구이다. 1797년 10월 14일(정조 21년) 북태평양을 탐사하던 87톤급 영국 탐사선 프린스 윌리엄 헨리호가 물과 식량이 동나면서 용당포로 떠밀려왔다. 오랫동안 이 함선의 이름은 프로비던스호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 윌리엄 로버트 브라우턴 함장과 선원 35명은 8일간 용당포 앞바다에 정박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비밀리 교류해 '나무(Sonamo)', '바람(Parrum)' 등 우리말 38개 단어를 기록하고 신선대에 올라 해안 일대를 측량하고 그림으로 남겼다. 선장은 주민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권총과 망원경을 선물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과 브라우턴 함장의 '북태평양 탐사항해기' 에 나와 있다.

국내 최초·최대 나병원 감만동 상애원(19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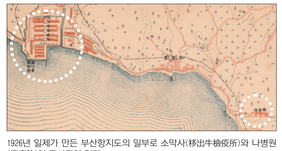
'한센병(나병원) 환자의 성자 로 불리는 호주의 제임스 노블 맥켄지(1865~1956, 한국명 매견시) 선교사가 운영한 국내 최초의 나환자 병원이다. 1909년 엣 부산외국어대학 캠퍼스 인근에 설립돼 일제가 감만동 일대를 병참화하기 위해 1941년 강제 폐쇄하기까지 국내 최대의 나환자촌이었다. 맥켄지 선교사는 1912년 5월 원장으로 취임해 일제로부터 강제 추방된 1938년 2월까지 26년간 운영했다. 처음 작은 진료소로 출발한 상애원은 맥켄지의 노력으로 병사 31동, 교회, 학교, 전염병환자 수용소 등을 갖춘 거대한 나환자촌으로 성장해 600명 이상의 나환자들이 상주했다. 상애원은 가족과 국가로부터 외면당한 부산·경남의 나환자들을 무상으로 보듬어 의식주는 물론이고 자립을 위해 학교도 세웠다. 맥켄지는 성인 한센병 환자들에게 건축과 토목기술도 가르쳤다. 1938년 2월 15일 호주로 쫓겨가는 맥켄지 가족을 환송하기 위해 부산시장을 포함해 부산시민 1000여명이 부산항에 몰렸을 정도로 많은 존경을 받았다.

1939년 국내 첫 나병원인 감만동 상애원에서 열린 체육대회. 병원 규모가 거대한 촌락을 연상시킨다.

우암동 소막사(1909년)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1200년간 유지된 육식금지령이 해제되면서 소고기에 대한 수요는 폭증했고 이를 위해 인근 국가에서 소를 수입해야 했다. 우암동 소막사는 전국의 소를 한데 모아 일본으로 이출하기 위해 잠시 머물던 축사이다. 소막사 폭 9m, 길이 42m의 목조 건물로 한 동에 120마리 정도가 머물렀다. 1909년 우암동 비탈에 처음 세워진 소막사는 이후 19개 동으로 불어나 일대가 거대한 '소마을' 이 됐다. 해방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피란민의 임시숙소로 사용되었고 산업화 시대 정부의 불하를 통해 정식 주택으로 인정받았다. 현재 남구청은 원형이 남아 있는 소막사 한 동을 매입해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우암동 소막사.



1926년 일제가 만든 부산항지도의 일부로 소막사(移出牛檢疫所)와 나병원(癩病院)이 표시되어 있다.

2차대전의 비사, 장자등포대(1930년)

태평양전쟁을 대비해 미국 등 연합군 함대가 대한해협을 지날 때 타격하기 위해 일본 군부가 극비리 매복한 비밀병기다. 오륙도SK뷰아파트와 오륙도해맞이공원 사이에 당시 포진지 동굴이 남아있다. 장자산 아래 있어 정식 명칭은 '진해만요새 장자등 포대' 이다.

포진지 구축은 1924년 10월~1930년 10월까지 꼬박 6년이 걸렸다. 포신 18m, 포구경 408㎜, 사거리가 30km가 넘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캐논포 2문은 일본의 패망으로 미군이 폭파 해체했다.

釜山·경남暴雨, 49명 死亡·실종
慶尙日報
22명 負傷·재산피해 13억5천만

36명 목숨 앗아간 문현동 산사태(1985년)

1985년 7월 5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돌산마을로 불리는 문현2동 산24-1번지 뒷산이 폭우로 무너져 내려산 아래 주택 24채를 덮쳐 총 36명이 매몰돼 사망했다. 사고가 있기 전 보름 동안 615㎜의 비가 지속적으로 내린데다 당일 166㎜ 집중호우로 높이 50m의 비탈이 무너져 내리면서 300톤 가량의 흙더미가 마을을 삼켰다. 현재 이 일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로 주민들은 모두 떠난 상태다. 1072세대(지하 3층, 지상 28층 8개 동)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 문현동 산사태를 보도한 1985년 7월 6일자 부산일보 1면.

왕정문 남구 향토사 위원이 농바우(농바위)와 오륙도가 한눈에 들어오는 이기대 해안 쉼터에서 휴식을 갖고 있다. 왕 위원은 남구의 향토사를 집대성한 인터넷 블로그 '농바우' 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10대째 본토박이, 그의 추억이 곧 남구의 역사

■ 남구의 산증인 왕정문 남구향토사위원

"지난번 태풍 불고 나서 와보니 군데군데 생긴 물웅덩이에 산개구리, 참개구리들이 떼 지어 있지 뭐야, 이기대 생태계가 복원되었다는 신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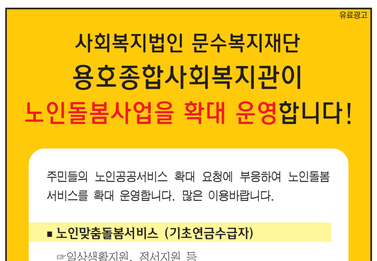
혹여 이기대 해안가에서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 왕정문(74) 남구향토사 위원의 '남 모르는 노력' 임을 기억하시길. 8년 전 그가 깊해 주촌 습지에서 양동이 한 가득 개구리알을 담아와 이기대 곳곳에 방사했고 이후 이기대에서 사라졌던 개구리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왕 위원은 남구에서 나고 자란 본토박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집안은 10대째 용호동에서 살고 있다. 그는 개성왕씨 34대손이다. 고려가 망하자 고려 왕족인 개성왕씨들은 난을 피하기 위해 전국 각지로 흩어졌고 이때 그의 선조 한 명도 용호동으로 은신했고 300년 이상 세거(世居 : 한 고장에 대대로 살아옴)해 왔다.

집안 대대로 남구에 뿌리내렸기에 그의 애향심은 남다르다. 이기대 농바우 기암에서 이름을 딴 그의 인터넷 블로그 '농바우(blog.daum.net/nongbau7)' 에는 남구 특히 이기대와 용호동에 관련된 자료가 산처럼 쌓여 있다. 일본 기밀문서가 해제되기를 기다렸다가 하나둘 수집한 '극비문서와 희귀 사진 은 웬만한 역사관보다 방대하다.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부터 20년 이상 쌓아온 자료들은 그 자신도 양을 가늠하질 못한다.

특히 용호동 역사 가운데 일제가 장자산 자락에 극비리 구축한 용호포진지에 관한 관심은 각별하다. 그의 부친인 왕석호 옹은 젊은 시절 포진지 공사에 동원돼 콘크리트 반죽을 직접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그는 부친을 대신해 용호포진지와 관련된 신문·방송에 단골로 출연해 그 유래를 설명해 왔다. 동네 친구들과 포진지를 놀이터 삼아 유년시절을 보냈다. 일제 패망 직후 미군의 폭발 해체로 포신과 포탑은 사라졌지만 포탑을 나르던 객차와 레일 등 포진지는 그때만해도 원형 그대로 남아있었다. 포진지 주변으로 쭉쭉 뻗은 삼나무와 편백나무가 많았던 것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1965년 3월 해병대에 입대하고 1년간 월남 파병을 다녀온 뒤 찾은 포진지는 '냉마조각' 이 되어 있었다. "포진지 내 철근을 떼 내다 팔려고 주민들이 경기도에서 해체전문가를 불러 작업을 했다더군. 기가 찰 노릇이야." 역사의 현장은 그렇게 황망히 사라졌다.

개인 사업을 하는 그는 환경운동이라는 또 다른 '업' 을 짊어졌다. 어릴 적 동무들과 이기대 앞바다에서 헤엄 치고 담치 따고, 절벽 등굴에 올라 박쥐 잡으며 놀았다. 그런 이기대가 개발 위기에 놓이자 환경운동가로 변신해 개발업자와 극렬하게 맞섰다. 그 와중에 몇몇 공직자가 옷을 벗는 등 관청과의 골도 깊어졌다. 그래도 팔자에 없던 환경운동으로 이기대는 개발 광풍을 빗겨갈 수 있었다. "선생 덕분에 이기대가 이렇게 남았다"고 말해주는 주민들을 만나면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지난 4월말 부친이 98세 일기로 유명을 달리했다. 오랜 세월 한 집에 모시며 구순 노인의 등을 떠어주던 삼갑던 아들이었다. 말년에 알츠하이머로 부친의 모습이 망가지는 걸 지켜봐야 했다. 상심감은 호젓한 이기대 언덕을 오르내리며 달래고 있다. 수십 년 째 매일 서너시간 이기대 숲길을 거닐며, 들꽃과 식생을 조사하고 이를 사진과 글로 기록해 블로그에 올려놓았다. 이기대 자연은 그에게 있어 벗이자 가족이자 아버지이다. 그에게서 초록 왕기가 배어나는 이유이다.